

올러 재계약·카스트로·데일 영입… KIA 외인 퍼즐 완성



아담 올러와 총액 120만달러… 26경기 11승 활약
카스트로, 메이저리그 통산 450경기 타율 0.278
호주 국내 출신 데일, 내야전 포지션 소화 등 장점

KIA타이거즈가 2026시즌에 뒀던 외국인 퍼즐을 완성했다.

KIA는 “아담 올러(31)와 총액 120만달러(계약금 20만·연봉 70만·옵션 30만달러)에 재계약을 마쳤다. 이어 새 외국인 타자 해럴드 카스트로(32)와 100만달러(계약금 20만·연봉 70만·옵션 10만달러), 아시아쿼터 제리드 데일(25)과 15만달러(계약금 4만·연봉 7만·옵션 4만달러)에 계약했다”고 25일 밝혔다.

올러는 올 시즌 KBO 리그에 데뷔해 26경기에 선발 등판해 팀 내 최다인 11승을 거뒀고, 149이닝 169탈삼진과 WHIP(이닝당 출루허용률) 1.15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특히 9이닝당 탈삼진이 10.21개에 달할 정도로 뛰어난 구위를 뽐내며 이 부문 리그 5위에 올랐다.

이날 재계약으로 올러는 내년에도 네일과 함께 팀의 원투펀치를 이루며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올러는 “내년 시즌도 타이거즈와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최고의 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벌써부터 설렌다”며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

서 내년 시즌 팀의 도약에 일조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위즈덤과 결별을 선언한 KIA는 새 외국인 타자로 카스트로를 뽑았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출신인 카스트로는 신장 183cm, 체중 88kg의 체격을 지녔다. 메이저리그에서 6시즌, 마이너리그에서 3시즌(이하 트리플A)을 보냈다.

메이저리그 통산 450경기에 나서 391안타 16홈런 156타점 134득점 0.278의 타율을 작성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204경기에 출전해 215안타 27홈런 109타점 98득점과 타율 0.294를 기록했다. 올해는 마이너리그 99경기에서 113안타 21홈런 65타점 0.307의 타율과 OPS 0.892의 성적을 썼다.

카스트로는 정교한 타격 능력을 보유한 중장거리형 타자이며, 내외야 전 수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아시아쿼터야수도 합류한다.

호주 국가대표 출신의 내야수인 데일은 2016년 호주 ABL의 멜버른 에이시스에서 처음으로 프로



아담 올러



해럴드 카스트로



제리드 데일

무대를 밟았다. 이후 2019년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은 뒤 트리플A 2시즌 포함, 총 6시즌을 뛰었다.

올해는 일본 NPB의 오릭스 버팔로즈에 육성 외국인 선수 신분으로 입단. 2군에서만 41경기에 출전하며 35안타 2홈런 14타점 12득점 타율 0.297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2025 KBO Fall League에서는 멜버른 에이시스 소속으로 12경기에 나서며 17안타 7타점 10득점 타율 0.309의 성적을 남기기도 했다.

KIA 관계자는 “카스트로는 우수한 콘택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올해 마이너리그에서 21홈런을 때려낸 만큼 장타력도 겸비해 팀 타선에 큰 활약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데일에 대해서는 “내야 전 포지션 소화 가능하고 수비력이 뛰어나 팀 내 내야 유망주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안정감 있는 수비와 더불어 경험도 풍부해 내야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10월 나주 해피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 투어 '2025 광남일보·해피니스 오픈'에서 흥정민이 티샷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남일보DB

2026시즌 KLPGA, 31개 대회·상금 347억 ‘최대 규모’

새 시즌 정규투어 일정 발표… 광남일보·해피니스 오픈 10월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2026시즌 KLPGA 정규투어 일정을 발표했다.

2026시즌 KLPGA 정규투어는 3월 대국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31개 대회로 치러진다. 총상금은 347억원, 대회당 평균상금은 약 11억2000만원으로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2025시즌(31개 대회·총상금 346억원) 대비 약 1억원 증가한 수치다.

2026시즌에는 총 4개 대회가 신설됐다. 시즌 개막전인 ‘000 챔피언십’은 태국에서 총상금 12억 원 규모로 개최되며, 국내 개막전으로는 총상금 10억원의 ‘더 시에나 오픈(가칭)’이 열린다. 4월 마지막 주에는 총상금 12억 원의 ‘DB 위민스 챔피언십(가칭)’이, 10월에는 ‘000 오픈’이 열린다.

상금 증액이 확정된 대회도 있다. ‘네션·세인트 나인 Masters 2026’은 지난해 총상금 9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돼 10억원으로 편성됐다. ‘2026 쉐르 리온 퀸즈 마스터즈’는 지난해 12억원에서 3억원

이 증액돼 총상금 15억원을 놓고 펼쳐진다. 이외에도 일부 스폰서가 상금 증액을 계획하고 있어 2026시즌 KLPGA투어의 총상금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LPGA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LPGA 챔피언십’은 2026시즌부터 BC7년,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총상금 15억원 규모로 개최된다.

또 올해 정규투어 신설대회로 합류한 ‘광남일보·해피니스 오픈’은 내년 10월 두 번째 모습을 선보인다.

광남일보(회장 양진석)·해피니스컨트리클럽(대표이사 차재진)이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한 광남일보·해피니스 오픈은 올해 총상금 1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지난 2021년 전남 영암군 사우스링스 영암(현 골프존카운티 영암45)에서 열린 크리스 F&C 제 43회 KLPGA챔피언십 이후 4년 만에 전남 지역에

서 치러진 KLPGA 정규 대회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갤러리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기 때문에 관중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완전한 정규투어는 2013년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당시 승주CC) 이후 12년 만이다.

올 시즌 KLPGA 29번째 정규 투어에 추가된 이 대회에서는 리슈잉이 처음으로 ‘골프퀸’에 오르게 됐다. 리슈잉은 지난 2015년 9월 한화금융 클래식에서 우승한 노무라 하루(일본) 이후 10년 만에 KLPGA 정규 투어 대회를 제패한 외국인 선수가 됐다. 중국 선수가 KLPGA 정규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리슈잉이 사상 최초다.

김상열 KLPGA 회장은 “한국여자골프의 발전을 위해 대회 개최를 결정해 주신 모든 스폰서분들과 투어를 응원해 주시는 골프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KLPGA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3월 개막하는 2026시즌 KLPGA투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새 사령탑에 이정규 선임

제8대 감독에 전 서울이랜드FC 수석코치 낙점



프로축구 광주FC가 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제8대 감독으로 이정규 전 서울이랜드FC 수석코치를 선택했다.

광주는 구단의 축구 철학과 전술적 색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로 이정규 감독을 낙점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는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광주FC만의 축구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이정규 감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시즌 동안 광주FC 수석코치를 역임하며 내부 사정과 선수단 특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정규 감독은 만 30세의 이른 나이에 우석대학교 수석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이후 동의대학교, 중국 리장FC, 부경고등학교, 충남아산FC, 광주FC, 서울이랜드FC 등 다양한 현장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2022년 광주FC 수석코치 부임 이후 K리그 2 다이렉트 승격 및 우승, 2023년 K리그 1 3위 달성과 구단 최초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 등 구단 역사에 남을 성과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정규 감독은 수석코치 역임 시절, 특유의 축구 철학과 전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이정규 감독은 취임 소감을 통해 “프로 감독으로서의 첫 출발을 좋은 기억이 가득한 광주FC에서 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구단이 추구해 온 방향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 제 모든 열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광주FC를 더욱 경쟁력 있는 팀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정규 감독은 코칭스태프 인선과 선수단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5일 태국에서 1차 동계훈련에 나서며 답급집에 돌입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선문대 원어 오하중 영입… 측면 강화

프로축구 광주FC가 측면 전력 강화를 위한 젊은 파울 수혈했다.

광주는 선문대학교 출신 원어 오하중(23)을 영입, 스쿼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2003년생인 오하중은 제주서초-신명중-이천제일고-선문대를 거치며 성장한 선수로, 빠른 발과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이 강점이다.

자신감 있는 1대1 돌파 능력을 갖춰 측면 공격 전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유형으로 평가되며, 지난해에는 구단 소속 강화수·김동화와 함께 선문대를 대학 축구 4관왕으로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오하중은 현재 등록 금지 징계에 따라 내년 여름 이적시장이 열리는 6월부터 선수 등록이 가능해 출전할 수 있으며, 구단은 해당 기간 동안 선수의 적응과 전술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실전 투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